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역할 연구

강 지 혜
(아주대)

1. 서론

본 연구는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위치와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시민사회, 학계, 언론단체에서는 인종과 민족이 다양해진 한국사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하고 있고, 특히 이주민의 증가로 두드러진 ‘차이’와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심승환 2009, 윤인진 2008, 이민경 2013, 조상식 2009). ‘차이’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언어·문화의 차이는, 소통과 상호이해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차별,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차이의 인정, 공존, 통합의 문제를 고민하는 한국사회에서 통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문화적 문제

이며, 차이 속에서 소통과 공존을 모색하는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 거주 이주민의 증가와 통역의 필요성은 전지구적인 변화의 맥락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자본과 인구가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인종과 문화와 종교도 개별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Robertson 1992, Castells 1996).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 특히 노동이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Kymlicka 1995). ‘다문화화’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언어적 차이 속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역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결국 많은 국가가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 제도를 필요로 인해 채택하고 있다(Ozolins 2010).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통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호주, 미국을 비롯한 다문화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최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중심으로 통역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등장하고 있다.¹⁾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통역 관련 법규와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일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신설조항인 제11조의2 제1항(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통역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가이드). 이러한 사업들은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과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을 통번역 인력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시 통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의 목적 중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으로 채용하여 사회진출을 돕는다는, 취업지원 정책의 의미를 지닌다.²⁾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언론보도가 통역을 담화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주 유입사회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주민의 의사 전달을 위해 통역이 행해진다고 할 때 통역은 언어전환인 동시에 소통이며, 통역의 역할은 특별히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통역이 국가 정책으로, 이주민 개인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행위로, 다문화 문제 해결의 주체·대상·방법의 문제로 다뤄질 때는 소통의 수단 이상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뉴스에서는 다문화에 관한 내러티브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데, 이 때 통역이 수행하는 역할과 통역에서 두드러지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의 지형을 살펴본다. 이어서 통역 연구에서 다문화와 통역의 관계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고찰한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다문화 관련 언론보도에서 통역이 제시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끝으로 언론이 다문화와 관련하여 통역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문화 문제와 통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한다.

2.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

2.1 ‘다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여러 차원에서 사용된다. 우선 ‘다문화’

2)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9월 1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노동부의 워크넷 기능이 연계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요원의 인력 풀이 부처 합동으로 구축되는 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중략)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9.16(목)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171개)는 노동부의 “워크넷” 내부망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2012년 기준 전국 282명의 결혼이주민 통·번역전담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는, 한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인구통계학적으로 사회가 ‘다문화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³⁾ 사실 201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약 2.7%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가 ‘다문화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김영명 2013, 윤인진 2008, 조현상 2012).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가 5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고, 전체 결혼의 10%를 차지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하는 등 인구 구성상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점유율이 5%를 넘어야 ‘다문화사회’로 불리고, 이민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OECD 국가들은 이민자 비율이 1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현상적으로 다문화사회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문화’ 개념은 이런 인구 구성적 측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Barry 2002, Kymlicka 2001, Parekh 2002, Taylor 1994). ‘다문화’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뜻하며, 이는 다양한 인종·종족·종교·언어·문화가 혼재된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국가체제 안에 통합시키고, 사회적 결속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이념체계 또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담론의 주된 관심사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언어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없애고, 소수집단의 단위문화와 주류의 문화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있다(이용승 2011). 여기서 다문화는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문화’는 관용과 평화적 공존이 존재하는 사회, 즉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지칭하는 동시에 그러한 지향을 실천하는 수단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다문화’는 수단과 목적, 실천과 사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구학적 지형을 기준으로 하는 ‘다문화’는 특별한 사회적 합의나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념체계나 지표로서의 ‘다문화’는 논쟁적인 개념이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문화주의가 인식론적으로 역설과 딜레마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진시

3) 사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다문화’보다는 ‘다인종·다민족’ 사회로의 이행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원 2011). 다문화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정초해 있는데, 문화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가 진리와 표준으로서 유일성과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는 관점을 토대로 하고, 문화 다원주의는 모든 문화가 독특한 구조와 가치 체계를 지니기 때문에 개별 문화는 모두 소중하다는 시각을 가진다(Portera 2008). 여러 인종·민족·문화의 공존과 관용을 추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소수집단 간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서로 간의 타자성이 확대·재생산되어 결국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간에, 그리고 소수집단 간에 다름과 낯섦이 더욱 지속되고 공고해지는 역설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는 여러 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공동체 전체의 통합을 추구하는데, 집단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강조할수록 공동체의 통합이 약화되고, 역으로 통합을 강조할수록 집단 간의 차이가 무시되고 은폐되어 결국 차이에 대한 억압이나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역설로 인해 다문화주의는 정치성을 띠게 되며, 정치적 의도를 포장하거나 은폐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다문화주의’가 실제로는 동화주의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카스타뇨의 논의를 토대로 진시원은 ‘다문화주의’ 범주에 6개의 모델, 즉 ‘동화(assimilation)를 위한 다문화주의’, ‘융합(amalgamation)을 위한 다문화주의’, ‘다원주의를 위한 다문화주의’, ‘문화간 수용 능력(cross cultural competence) 함양을 위한 다문화주의’, ‘비판적 의식(critical awareness) 고취를 위한 다문화주의’,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위한 다문화주의’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Castagno 2009, 진시원 2011).⁴⁾ 그런데

4) ‘동화를 위한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문화 다양성을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와 달리, ‘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다원주의를 위한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문화 다양성을 요구하며 다양한 문화 집단이 서로 공존하는 사회와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가 집단 간의 동질성을 강조한다면, 다원주의를 위한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리고 ‘문화간 수용 능력 함양을 위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주체가 자신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도와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비판적 의식 함양을 위한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의 강압, 특권, 권력 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며 사회 정의와 기회균등, 사회자원의 균등 배분 등에 대한 인식 강화를 목표로 추구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은 ‘동화를 위한 다문화주의’와 ‘문화간 수용 능력 함양을 위한 다문화주의’에 치중해 있으며, ‘융합의 위한 다문화주의’, ‘다원주의를 위한 다문화주의’, ‘비판적 의식 고취를 위한 다문화주의’, ‘사회적 행동을 위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 인종적, 문화적 타자 존중을 표방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의미와 의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심지어 상반되는 목적에 동원되기도 한다.

2.2. 다문화 담론의 지형과 주체의 문제

담론의 주체에 따라 다문화 담론은 내용과 실천적 지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주체인 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주의 정책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함께 맞물리면서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정책과 사업에는 ‘다문화’가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동화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측면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 16), “국가 주도 다문화주의”(조현상 2012: 235)이며, 내용적으로는 동화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

다문화 담론의 지형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의 주체인 이주민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주민은 다문화의 주체이지만 현재 다문화 담론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은 다문화 담론의 대상이며, 이들의 존재와 정체성은 다른 주체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일례로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화정책, 온정적 시혜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혜순 2008). 이주민이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

다. ‘사회적 행동을 위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주체가 사회적 문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실천 지향적 이데올로기이다.

- 5) 한경구·한건수(2007)는 이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력 및 경쟁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주목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화주의적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선별적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반론과 비판에 대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협력·갈등·경쟁의 관계를 토대로 다문화 담론을 형성해 왔다고 설명한다.

보다는 “수혜의 대상”이자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집단의 경우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디어가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의 주체인 이주민이 제시되는 방식은 중요한 파급력을 지닌다. 그런데 뉴스와 방송에서 다문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디어가 이주민의 문화적 주체성을 존중하거나 이주민을 다문화·다민족적 공존의 대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들을 ‘피해자’, ‘지원 대상자’, ‘부적응자’로 재현하면서 한국사회의 ‘타자’임을 부각시킨다(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이경숙 2006; 이동후 2006). 일례로 오경석(2007)은 미디어가 다문화 현상을 문화상품화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하고 유통시킨다고 주장한다. 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문제화’와 ‘신비화’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에 의해 재현되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반응은 ‘경계심’과 ‘온정주의’로 양극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존재는 탈맥락화되고 타자화된다고 설명한다.

다문화 관련 언론보도 분석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양정혜(2007)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뉴스가 주로 언어 및 문화적 동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러한 다문화 지원은 주류 한국사회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이주민의 존재가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토대로 한다고 강조한다. 결혼이주여성은 ‘동화의 대상’, ‘혼란을 겪는 대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동질적이고 집합적인 타자’로 구성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주민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한 김경희(2009)도 뉴스에서 이주민의 건강 문제, 심리적 불안이 부각되면서 이주민이 사회적 약자이며 수혜의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엄한진(2008)의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주민의 사고방식, 종교생활, 일상생활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설명한다. 한국언론재단의 데이터베이스인 KINDS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사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이민 담론이 이민자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경향”(엄한진 2006: 34)을 보인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에서도 뉴스보도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을 실제 현

실보다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고,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재현이 편향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다문화 담론의 주체인 언론집단은 이주민을 ‘수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의 주체로 호명되는 집단이나 개인은 주로 이민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미등록), 결혼이민 여성, 소수민족, 소수종족, 새터민, 혼혈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특히 다문화 정책)에서는 결혼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의 유지 및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으로 인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다(김혜순 2008).⁶⁾ 이는 결국 이주민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주의 모델이 한국사회에 부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이주민의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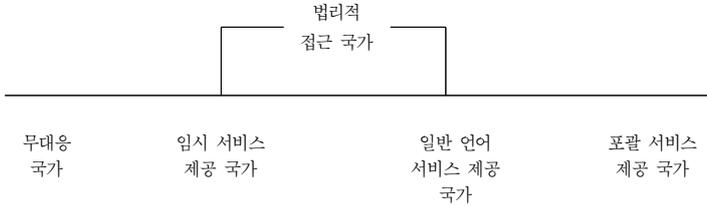
3. 다문화와 통역: 통역학적 관점

다인종·다민족 사회가 전지구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통역학계의 관심은 오랫동안 국제회의통역이나 동시통역에 편중되어 있었다(Cronin 2003, Diriker 2004). 2000년대 초반에 비로소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의 문제들이 통역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약 15년 동안 지역사회통역은 사법통역, 의료통역 등 하위유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Hertog and van der Veer 2006; Hale 2004, 2007; Wadensjö 1992, 2008; Angelelli 2004; Mason 1999; Corsellis 2008; Hertog 2009; Mikkelsen 2000).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지역사회통역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cf. 강지혜 2004; 고영민 2004, 2005; 류현주 2006) 통역교육, 통역능력, 담화적 특성, 법제의 문제 등의 주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김나제스다 2012; 김진아 2008; 김진아·정혜연·이상빈 2009; 이지은 2011; 정혜연 2009; 최철 2009).

다문화사회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6) 이용승(2010)은 <외국인처우 기본법>, <미등록 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특례조치> 등 간헐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이외의 이주자에게도 권리의 보장이나 지원이 제공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공하는 문제를 ‘제도화’의 관점에서 연구한 오졸린스는, 이주민의 증가가 반드시 지역사회통역의 법적·제도적 준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Ozolins 1998). 이주가 전지구적 현상이지만 이주민 유입으로 발생한 통역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다고 본 오졸린스는, 국가별 대응방식을 기준으로 ‘무대응 국가’,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 ‘포괄적 서비스 제공 국가’로 구분한다(<그림 1> 참조).



<그림1> 지역사회통역 수요에 국가가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유형 (Ozolins 1998)

오졸린스는 이들 범주 이외에 ‘법리적 접근(legalistic approach) 국가’를 별도로 두면서,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 양쪽에 모두 해당하고, 이주민의 통역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국가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⁷⁾ 이러한 구분법을 토대로 강지혜(2009)는 한국이 현재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 ‘법리적 접근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통역에 대한 이주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언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통역 연구자들은 통역이 화자의 발화를 새로운 언어로 전환하여 청중/청자를 위해 다시 표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역을 ‘다시 표현하기’(Gile 2004,

7) ‘무대응 국가’는 국가가 특별히 언어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주민이 주로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될 때 나타나는 대응 방식이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등 페르시아 만 연안의 국가들). ‘임시 서비스 제공 국가’는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역사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지칭한다(예,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일반 언어서비스 제공 국가’는 이주민을 위한 언어서비스가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국가이다(예, 캐나다 (예, 지방 정부의 통역서비스 초기 제공 단계)). ‘포괄 서비스 제공 국가’는 통역이 공식적·전문적인 시스템 속에서 제공되면서 교육과 인증 등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뜻한다(예, 호주, 스웨덴 등).

Jones 1998)로 이해한다. 또한 통역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흔히 ‘블랙박스’로 묘사됨)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처리’(Gerver 1969/2002, 1974; Lambert 1988; De Groot 1997; Lambert, Daro and Fabbro 1995)로 간주하기도 한다.⁸⁾ 그러나 지역사회통역은 무엇보다도 ‘문화중개’(Katan 2004), ‘상호작용’(Wadensjö 1998; Roy 2000; Mason 2001), ‘사회적 실천’(Inghilleri 2005; Baker 2006; Pym, Shlesinger and Simeoni 2009; Pym, Shlesinger and Jettmarová 2003)을 특징으로 한다.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제도적 상황에서 상이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통역은 행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역은 언어 전환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중개·협상하는 과정이며, 통역사는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다. 소통 상황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는 흔히 절차와 권리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통역은 ‘차이’와 ‘권력’의 문제에 대면하는 과정이다. 이는 곧 통역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행위, 사회적 실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통역을 수행하는 통역사가 어떤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규범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사회통역을 논의하는 연구자들은, 전문 통역 교육을 받은 통역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자세로 통역을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강조한다(cf. Hale 2007). 그러나 많은 통역사들이 중립적·객관적으로 통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전문 통역 교육을 받지 못한 통역사,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역 현장에 투입되는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Mason 1999).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통역을 수행하는 많은 통역사가 자신의 역할을 이주민의 ‘조력자’, ‘대변인’, ‘옹호자’로 인식한다(Hale 2011, Wadensjö 2008). ‘통역전문가’나 ‘소통전문가’보다는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신장하는데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통 지역사회통역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구조 속에서 행해지므로 통역사는 이주민의 조력자, 대변인 역

8) 강지혜(2010)는 통역에 관한 논의가 주로 ‘대표현으로서의 통역’, ‘정보처리로서의 통역’, ‘문화중개로서의 통역’, ‘상호작용으로서의 통역’,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통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강지혜(2010) 참조.

할을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일이며, 통역사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시정하는데 기여할 도덕적 책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e.g. Barsky 1996, Kaufert and Putsch 1996). 그러나 실제 통역 상황을 녹취한 후 데이터를 전사·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통역사는 흔히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오히려 기관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e.g. Davidson 2000, Jacquemet 2005, Angelelli 2004). 업무의 효율성, 절차 등을 이유로 통역사는 자발적으로 이주민의 ‘목소리’를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역사도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기관의 이념, 목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통역사는 단어와 구문과 문장을 정확하게 옮겨 재연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cf. Berk-Seligson 2002, Hale 2004). 특히 사법통역 상황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이 통역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배경 정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혀 동원하지 않는, 그리고 개인적 판단도 개입되지 않는, 단어 대 단어의 치환과 단순한 언어 전환”(Hale 2011: 351)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헤일이 강조하듯이 이러한 관점은 언어와 통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처럼 통역사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통역사의 자기인식과 통역사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대한 검토를 수반해야 한다. 바덴조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사법통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중립성과 거리두기의 원칙(the principle of neutrality and detachment)이 전문 지역사회통역사와 통역교육자 간의 논쟁에서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지역사회통역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관여와 거리두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실제 통역현장에서 통역사는 흔히 이주민의 대변인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관의 ‘도구’로도 인식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이는 지역사회통역사가 상반되는 두 관점에서 모두 잠재적 ‘변절자’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역사가 중개인으로서 겪는 딜레마는,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 민족간 긴장관계,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많은 지역사회통역사들은 소수집단 출신이지만 같은 집단의 다른 이주민에 비해 주류사회에 효과적으로 동화한 사람들이며, 주류사회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Wadensjö 2008: 44)

바덴조는 통역사의 정체성이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심지어 상반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곧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사회에서 통역사의 역할과 정체성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시사하며, 통역사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 단편적, 편파적인 모습으로 고정되어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다문화 담론에서 통역의 위치와 역할

4.1 다문화 관련 보도에서 통역

본 논문에서는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다문화와 통역의 문제를 다룬 기사(사설, 논단, 기획, 연재기사 포함)를 분석한다.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통역’/‘통번역’/‘통·번역’ 그리고 ‘이주’/‘이민’/‘다문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를 검색어로 조회하여 해당 기간 동안 다문화와 통역의 문제를 다룬 기사를 수집하였다. 통역과 다문화 관련 검색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기사만을 수집한 후 검색된 기사 중 다문화 관련 내용이 아니거나 협의의 번역(문어 기반)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75개의 기사로 데이터가 구성되었고, 한겨레신문에서 37개, 조선일보에서 38개의 기사가 포함되었다.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두 신문사가 정치적, 경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각각 진보적, 보수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김경희·노기영 2011; 박선희 2001; 손영준 2004), 따라서 이념적 차이를 보이는 언론사의 기사를 모두 데이터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통역이 기사에서 제시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 개념을 사용한다(Goffman 1974). 사람이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범주화할 때 일련의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주목한 고프만은, 현실을 지각하고 표상하는데 토대가 되는 ‘도식’, ‘관점’이 있으며, 이를 ‘프레임’으로 보았다.⁹⁾ 즉

9) ‘프레임’ 개념을 최초의 사용한 사람은 인류학자 베이즌이다(Bateson 1972). 그는 그림을 에워싼 액자틀 은유를 사용하여 액자들이 그림의 경계와 형태를 결정하듯이 사

프레임은 ‘해석의 틀’로 작용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조직하고 상호작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이 개념이 특정 인물, 사건이 담화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포착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뉴스텍스트 연구에서 프레임은, 보도되는 사안의 특정한 측면, 속성이 담화적으로 강조·축소·배제되어 사실관계가 다양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뉴스텍스트는 다양한 상징과 표현이 의미의 연결망을 이루어 특정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데, 이 때 작동되는 프레임에 따라 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도된 현실은 ‘구성된 현실’로 볼 수 있고, 뉴스는 사실과 의견을 특정 방식으로 배열하여 특정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면서 일정한 해석과 인식을 유도한다(Fairclough 1995, 2003). 엔트만은 뉴스보도의 맥락에서 프레임은 “특정 측면을 선택해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Entman 1993: 52)이라고 강조한다.¹⁰⁾

본 연구에서는 통역이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되는지 정성적으로 고찰한다(cf. Bing and Lombardo 1997, 강지혜 2010). 프레임별 사용 빈도를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정량적 분석은 하지 않고, 맥락을 고려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프레임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통역’이 언급될 때 함께 사용되는 어휘와 구조(co-text)를 분석한다. 또한 ‘통역’이 지시하는 대상의 성격(예, 행위, 과정, 결과, 수단, 목적, 현상 등)을 살펴보고, 통역이 행위·활동으로 기술되는 경우 행위의 내용·주체·대상은 무엇/누구인지 고찰한다. 특히 ‘통역’이 언급되는 문장의 선행 맥락, 후행 맥락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해 어떤 내러티브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러티브 속에서 통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기사별로 한 개의 프레임이 작동하기도 하지만, 복수의 프레임이 작동하기도 한다는 점

많은 ‘해석의 틀’을 토대로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설명한다. 액자 틀과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위소통적(metacommunicative)”(1972: 188)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행동을 ‘공격’의 틀로 보는가, ‘장난’의 틀로 보는가에 따라 그 행동이 다르게 해석되듯이 사건과 현상은 프레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이해된다고 설명한다.
10) 이는 기사의 형식적 제약으로 인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언론보도는 결국 ‘선택’과 ‘배제’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과도 관계가 있다.

을 미리 밝혀둔다.

4.2 다문화 관련 기사에서 통역

다문화 관련 기사에서 통역은 5개의 프레임, 즉 ‘소통으로서의 통역’, ‘사회 활동으로서의 통역’, ‘다문화지원 제도로서의 통역’,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 ‘전문직으로서의 통역’ 중심으로 언급된다.

4.2.1 소통으로서의 통역

다문화 관련 기사에서 통역은 우선 의사소통으로 제시된다. ‘소통으로서의 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통역사가 수행한다는 관점을 반영하며, 여기서 전제가 되는 통역 모델은 “도관 모델”(conduit model, Reddy 1979/1993)이다. 즉 통역사는 도관이 되어 화자의 말을 새로운 언어로 전환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며, 청자는 새로운 언어로 전달된 말을 수용함으로써 화자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통으로서의 통역’은 다문화 관련 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임이며, 다른 프레임이 작동되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프레임이다.

1.

(ㄱ)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나문의 꿈을 지켜주고 싶어요. 치료가 잘 되면 몽골로 돌아가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직 한국 말을 배우지 못한 나문 가족은 그때그때 통역사를 구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겨레 12.5.13)

(ㄴ) 그는 “한국에서 지내는 이 시간들이 경찰로서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겪은 마음고생과 상처들을 해소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는 과정”이라고 했다. 영화는 불안한 삶이라도 다시 부딪쳐보는 ‘스타쓰’를 통해 삶의 희망을 비춘다. 한국말이 서툰 그는 이 영화를 볼 관객들에게 해줄 말을, 이날 함께한 박루슬란 감독의 통역을 통해 전했다. (한겨레 12.10.19)

(ㄷ) 일주일 안에 한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편안해 보였다. 통역을 해준 김동영(이주노조 자원활동가)씨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는 한국에 대해 쌓인 분노가 많아 화를 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정말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한겨레 11.3.20)

(ㄷ) 1959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인 부위원장은 아버지의 외조부가 1895년 선교 활동을 위해 이주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으며, 5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외신기자와 시민군 사이의 통역을 한 이력이 있으며, 1987년 서양인 최초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선 12.12.28)

(1ㄱ)-(1ㄷ)에서 통역은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 및 과정으로 제시된다. 통역사는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중개한다. 통역이 (1ㄱ)에서는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통역사를 구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ㄴ)에서는 대화와 이해에 도달을(“이 영화를 볼 관객들에게 해줄 말을, 이날 함께한 박루슬란 감독의 통역을 통해 전했다”)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통의 당사자들은 통역으로 인해 상호이해나 문제 해결에 이른다.

그러나 소통을 중개하는 통역사가 소통상황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제시된다. (1ㄱ)에서는 통역사의 참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ㄴ)에서는 통역사의 설명이 언급되지만, 그 외에는 설명이 없다. 반면 (1ㄷ)에서는 통역사가 원활한 소통과 상호이해를 위해 상황과 맥락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1ㄷ)에서는 통역사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발적으로 통역을 수행한 일이 ‘이력’이 되어(“외신기자와 시민군 사이의 통역을 한 이력이 있으며”),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다. 즉 (1ㄷ)-(1ㄷ)에서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만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통역사도 여러 수준의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며 소통 상황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기여한다.

2.

(ㄱ)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말을 알리가 통역했다. (한겨레 11.5.17)

(ㄴ) 현지에서 그에게 한국어를 배우던 학생 몇몇도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와 있어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신씨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처음 낯선 나라에 가서 적응이 어려워 힘들었는데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해서 그 나라 문화나 생활습관을 익힐 수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한겨레 11.3.25)

(ㄷ) 시는 아울러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승객들을 위해 전화를 통해 외국어 통역을 무료로 해주는 ‘동시통역 시스템’도 시행한다. 통역 시스템은 택시를 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어·일어·중국어 등 7개 국어의 동시통역이 가능하다. (조선 12.1.12)

(ㄹ) 사과 산지인 이 고을에 지난달 16일 6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은 1년 전 대지진에 이어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후쿠시마(福島)에서 온 A(70)씨. 나머지 다섯 명은 통역, 가이드, 운전기사 등 한국인들이었다. (조선 12.3.10)

(2ㄱ)-(2ㄹ)에서는 통역의 주체와 관련하여 통역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이 보여준다. (2ㄱ)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아들인 알리가, (2ㄷ)에서는 타밀어를 아는 한국인 신씨가, (2ㄹ)에서는 ‘시스템’이, (2ㄷ)에서는 한국인이지만 실명이나 다른 설명이 없이 통역사가 언급된다. 즉 ‘의사소통으로서의 통역’에서 통역의 대상과 수혜자는 주로 이주민이지만, 통역의 주체는 이주민, 한국인,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주로 이주민의 자녀, 자원봉사자 등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4.2.4. ‘자원봉사로서의 통역’ 참조).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통으로서의 통역’은 기본적으로 통역에 관한 도구적인 관점을 토대로 한다. (1ㄴ)의 “말을 ... 통역을 통해 전했다”에서 “통역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에서 그리고 (2ㄹ)에서 통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통역사’가 아닌 ‘통역’으로 표현되는 데서도 통역과 통역사에 대한 도구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통역이 성공적인 소통, 상호이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1ㄷ)과 같이 통역의 수행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위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통역이 지니는 특별한 가치와 관련해서는 ‘사회진출 수단으로서의 통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4.2.2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

다문화 관련 기사에서 통역은 소통이라는 관점 이외에도 이주민의 주류사회 진출, 사회적 성공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특히 통역은 결혼이민여성이 정체

성을 확립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각된다.

3.

(ㄱ) 정씨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2005년 귀화했고 2009년엔 한국어능력시험 6급에 합격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학교에 보내고 나니 공부 욕심이 되살아났어요. 내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죠.” 그때부터 정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년간 결혼이주여성 통·번역 지원업무를 했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독학해 올해 초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땀고, 서울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야간과정에도 들어갔다. 그랬던 정씨가 이번엔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직원으로 채용됐다. (조선 11.4.18)

(ㄴ) 부산시는 “최근 공개채용을 통해 합격한 누엔티녹현(베트남 출신·24·사진)씨를 정식 채용했다”고 24일 밝혔다. 누엔티녹현씨는 오는 6월부터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통·번역 및 상담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조선 11.4.25)

(ㄷ) 베트남·우즈베키스탄·중국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부산·경남지역 사회 진출이 늘고 있다. 산청군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통역 및 관광안내요원이 그 대표적 사례. (조선 11.8.11)

(3ㄱ)-(3ㄷ)에서 통역은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 역량의 발휘, 성공적 사회진출의 관점에서 제시된다. (3ㄱ)에서 통역은, 몽골 출신의 정씨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직원”으로 채용되는 ‘성공’을 거두기까지 이룬 업적 중 한 가지로 소개된다. 즉 정씨의 통역 수행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독학”,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서울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야간과정” 수학 등과 함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행위, 성공을 위한 과정과 수단인 것이다.

통역이 성공에 도달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3ㄱ)과 달리, (3ㄴ)에서는 통역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맡게 되는 업무임을 보여준다. 베트남 출신의 누엔티녹현씨의 ‘성공’은,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통·번역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3ㄷ)에서도 통역은 사회진출에 ‘성공’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담당하는 업무로 제시된다.

(3ㄱ)-(3ㄷ)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주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발하는 ‘모범이주여성’으로 사례화될 때

동원된다. 따라서 통역은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사회적·문화적 적응 및 진출을 의미하며, 이는 통역에 소통 이상의 특별한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부여됨을 뜻한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소수자,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행위자라는 내러티브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4.

(ㄱ) 2007년 5월, 케이나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 택시기사인 남편(45)은 다행히 성실했다. 이후 귀화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얻었다. 젊은 한국인 부부 대부분이 그렇듯, 그도 맞벌이에 나섰다. 목포시 대성동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3년째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한겨레 12.12.3)

(ㄴ) “통번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이주여성에게 한달 100만원 정도 급여가 지급돼 한국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11.10.13)

(ㄷ) 진혜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뒤에야 진혜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진로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다 남편과도 헤어졌다. 엄마 김씨는 또다시 진혜를 홀로 뒷바라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 화정동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통역·상담 일을 했고, 지난 3월부터는 은행에서 중국인 고객을 상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월 100만원 안팎을 벌여 대출금을 갚고 생계를 유지한다. (한겨레 12.6.20)

(4ㄱ)-(4ㄷ)에서 통역은 결혼이민여성에게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 제시된다. 통역은 (4ㄱ)에서 “맞벌이”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젊은 한국인 부부 대부분이 그렇듯, 그도 맞벌이에 나섰다. 목포시 대성동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3년째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 (4ㄴ)에서 “한국 정착”에 필요한 경제 활동으로, (4ㄷ)에서 자녀 부양에 필요한 수입으로 기술된다.

(4ㄱ)-(4ㄷ)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은 통역 활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 물론 이 프레임에서도 통역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통역의 경제적 가치가 전경화(foregrounding)되면서 통역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5.

(ㄱ) “아이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외국인 엄마라서 그렇다고 뒤에서 수군 델 때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마저 학교에 온 엄마를 못 본 체할 때는 가슴이 무너져내렸다고 한다. 김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3년간 경기도 안산의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통역과 상담을 하면서 결혼 이주민 여성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 “베트남 출신 아내가 몸이 안 좋으면서 그 나라 정부에 ‘와이프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달라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도 아닌데…” 다문화 특별전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에 대한 추억과 혼례, 한국 생활의 갈등과 극복 과정을 담은 자료들로 꾸민다. 김씨는 이주 여성의 시각으로 전시 기획과 원고 작성, 자료 수집은 물론 전시회 포스터 모델로도 직접 나섰다. (조선 12.8.7)

(ㄴ) 사와 바야를(13)군은 “한글을 배워 한국어 번역·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조선 11.7.5)

(5ㄱ)-(5ㄴ)에서 통역을 수행하는 것은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꿈을 이루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5ㄱ)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다문화 특별전-내 이름은 마포포 그리고 김하나’라는 전시회를 기획한 미얀마 출신의 큐레이터 김씨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여기서 김씨의 통역 활동은,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3년간 경기도 안산의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통역과 상담을 하면서 결혼 이주민 여성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 통역은 이주민에게 ‘목소리’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다른 관련자(예, 이야기 속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의 목소리와 함께 섞이면서 갈등과 긴장을 드러낸다. 즉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은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과 주변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계기로 기술된다. 이와 달리 (5ㄴ)에서는 통역이 13세 소년의 인생 목표이고 ‘꿈’이다.

이처럼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은 이주민의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정체성의 확립, 자아실현 문제를 부각시킨다. 통역은 이민자의 ‘성공 내러티브’에 사용되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주류사회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4.2.3 다문화지원 제도로서의 통역

‘다문화지원 제도로서의 통역’에서는 통역 수행의 개별성, 개인성보다는 통역 관련 법제(법제) 또는 정책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6.

(ㄱ) 11일 시에 따르면, 5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조선 11.2.14)

(ㄴ) 울산글로벌센터는 2010년 3월11일 문을 열어 지금까지 2년 동안 모두 3697건의 외국인 주민 민원상담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에 이르는 2338건은 지난해 상담한 것으로 최근 부쩍 늘어난 외국인 주민 민원상담 추세를 반영했다.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통역 758건, 한국어 강좌 456건 등 언어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아 33%나 됐다. 다음으로는 임금·고용 514건, 출입국·비자 476건, 의료 225건, 결혼·이혼 148건 등 차례로 집계됐다. (한겨레 12.3.9)

(ㄷ)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20일 서울 합정동에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다누리 콜센터(1577-5432)’ 개소식을 가졌다. 생활안내, 정보제공, 상담서비스를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10개국 언어로 제공한다. 또 의사소통이 힘든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폭력피해 등의 긴급사항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와 같은 기관으로 연결해준다. (조선 11.6.21)

(6ㄱ)-(6ㄷ)에서는 다문화 지원 정책의 맥락 속에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6ㄱ)-(6ㄷ)에서 통역의 주체는 지자체 또는 기관이며, (6ㄱ)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돕는” 일을 위해, (6ㄴ)에서는 “외국인 주민 민원상담”을 위해, (6ㄷ)에서는 “의사소통이 힘든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위한” 소통을 위해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문화지원의 맥락에서 볼 때 통역은 ‘상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6ㄴ)의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통역 758건”은, 통역이 ‘상담’이라는 범주 내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에서도 나타난다. (3ㄴ)의 “누엔티녹헌씨는 오는 6월부터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문

화 가정을 위한 지원, 통·번역 및 상담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는 점, (4ㄷ)에서 중국 출신 김씨가 “울산 화정동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통역·상담 일”을 했다는 점, (5ㄱ)에서 미안미 출신 김씨가 “3년간 경기도 안산의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통역과 상담을 하면서 결혼 이주민 여성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통역을 담당하는 이주민은 상담도 담당한다.

동일인이 통역과 상담을 함께 맡는다는 것은 통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통역교육자들은 통역을 상담이나 다른 활동과 엄격하게 구분하며 통역사는 통역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Wadensjö 2008). 이는 결국 다문화 지원의 맥락에서 통역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통역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지원의 맥락에서 통역 전문 인력의 교육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통역서비스를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2.4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

다문화 관련 언론 보도에서 통역은 전문성을 가진 행위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구사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 프레임에서는 통역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 프레임에서는 한국인이나 이주민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문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주민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봉사활동으로 수행한다.

7.

(ㄱ) 봉사단 통역을 지원하기 위해 몽골국립대 한국어과 학생 9명과 몽골에 유학 중인 단국대 학생 12명도 봉사단에 합류할 계획이다. (한겨레 11.6.5)

(ㄴ) 박혜란(중국)·웬디후엔(베트남)·웨인(필리핀)씨 등은 벌써부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통역과 상담 등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조선 11.3.17)

(ㄷ) 신 씨처럼 한국국제협력단 단원으로 국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귀국한 단원들이 지역별로 모임을 꾸려 또다른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북 커뮤니티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2년씩 봉사활동을 했던 이들 20여명이 모여 다달이 한 차례씩 정기모임을 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1004 지역사회봉사단’에 가입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통역봉사를 하고 있다. (한겨레 11.3.25)

통역이 (7ㄱ)에서는 몽골과 한국의 대학생들에 의해, (7ㄴ)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7ㄷ)에서는 해외 봉사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전문적인 통역 교육을 받은 사람이 통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과 이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이주민의 모국어를 전문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민을 위한 통역이 자원봉사의 관점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중국어를 제외하고는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구사하는 모국어(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태국어, 네팔어 등)는 전문 통역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언어들이며, 따라서 여러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통역 수요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충족하고 있다.

8.

(ㄱ)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역 봉사도 해 보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부부 싸움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경찰서, 관공서를 찾아가도 표현을 제대로 못해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싶어요.” (조선 11.8.1)

(ㄴ) “나중에 제가 통역 자원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분이 부부싸움을 벌이고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부인이 잠옷 차림으로 외출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선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차이에다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하죠.” (조선 11.1.2)

(8ㄱ)-(8ㄴ)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이 결혼이주여성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된다. (8ㄱ)에서는 “의사 소동이 제대로 안돼”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즉 “부부 싸움”이나 “경찰서, 관공서”에서의 차별과 “피해”를 통역봉사를 통해 돕고자 한다. 즉 통역 봉사활동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의미를 지닌다. (8ㄴ)에서도 “문화 차이애다 말이 안 통하니”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며, 통역봉사활동은 이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통역은 소통이기도 하지만, 주류사회에서 타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여성의 주변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잃어버린 귀속감을 회복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통역은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우리 이주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며((8ㄱ)에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데서도 확인 가능), ‘활동가’로서의 의식을 가지는 계기로 제시된다.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이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과 만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양 프레임 모두 이주여성이 주류사회의 주체라는 점을 부각하나,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은 이주여성의 사회적 성공이라는 내러티브를 전경화하는 반면,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에서는 ‘활동가’로서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 확립을 전경화한다.

4.2.5 전문직/전문적 능력으로서의 통역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과 달리 통역이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통역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난다. ‘전문직/전문적 능력으로서의 통역’ 프레임은 주로 전문 통역사의 부족이나 부재를 문제시 하는 맥락에서 기술된다.

8. (ㄱ)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난민 인정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진술인데, 전문 통역인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난민신청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조선 12.2.28)

- (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고 있으나, 관광통역안내사는 크게 부족해 ‘무자격 가이드’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12.9.24)
- (ㄷ)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26일 외국인 노동자의 통역과 문서 작성 업무 등을 맡을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을 이달 30일까지 채용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12.3.26)

(8ㄱ)과 (8ㄴ)에서는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통역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통역이 소통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8ㄱ)의 “전문 통역인 없이 질차가 진행”되는 상황, (8ㄴ)의 “‘무자격 가이드’가 성행”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통역은 전문적인 통역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8ㄷ)의 채용공고에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 통역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이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통역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통역능력을 요구하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8ㄱ)-(8ㄷ)에서 요구되는 통역전문성은 난민심사통역, 관광통역, 금융기관에서의 ‘상담, 통역’이지만,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전문 통역사가 필요하다.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에서 보았듯이 결혼이주여성 통역사들의 가시성(visibility)이 높아진 것은, 관광서·금융기관·기업 등에서 이주민 통역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전문직/전문적 능력으로서의 통역’ 프레임이 주로 전문통역사의 부족, 능력 미달의 통역사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사회에서 아직 지역사회통역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문화 관련 기사에서 통역은 ‘소통으로서의 통역’, ‘사회활동으로서의 통역’, ‘다문화지원 제도로서의 통역’, ‘자원봉사 활동으로서의

통역’, ‘전문직/전문적 능력으로서의 통역’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뉴스에 등장하는 통역은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통역은 이런 도구적 기능을 넘어 정부의 다문화지원 의지, 이주민의 사회진출과 성공을 상징하는 역할을 지니기도 한다. 이주민의 통역활동은 이주로 인해 처한 새로운 사회문화적 조건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국내 이주민은 통역활동을 통해 다문화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즉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민은, 직장에서 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통역을 수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협상하는 역동적인 사회적·문화적 주체이며, 이주 유입국과 모국의 문화를 자신의 삶에서 동시에 중요한 준거로 만든다는 것이다.

다문화 담론이 일반적으로 이주민을 수혜나 시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역 관련 언론보도에서 이주민이 수혜의 대상뿐만 아니라 다문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특히 다문화 관련 기사가 이주민을 온정주의적인 관점에서 재현하는 것과 달리 통역 관련 기사에서는 이주민을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지닌 행위자로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통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다문화 내러티브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언론보도에서 통역은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를 표출하고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행위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뉴스를 통해 통역활동은 이주민이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과 공감하고 유대를 형성하면서도 한국사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통역하는 이주민’은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주 유입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위자인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는 이주민’을 부각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닌다. 다문화와 통역의 관계가 이주민의 사회진출이나 성공 내러티브에 편중되어 있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통역’이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언론보도에서 주목한 통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행해지는 ‘상담과 통역’이다. 이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역은 이런 통역 이외에도 의료통역, 법정통역, 경찰서통역, 난민심사통역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담과 통역’ 중심으로 통역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법통역이나 의료

통역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통역 교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통역 유형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는 이런 통역 유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¹¹⁾

사회진출 내러티브에서 관심의 대상은 주로 결혼이민자이며, 특히 결혼이민 여성이다. 다문화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데, 다문화와 통역 관련 언론보도에서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향성은 두드러진다. ‘통역하는 결혼이민여성’이 ‘사회 진출, 사회적 성공을 이룬 이주민’이라는 도식은 정부의 통역지원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며, 외국인노동자나 이주남성들은 다문화지원, 통역지원 대상이나 성공의 도식에서 주로 제외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서 통역의 대상도 주로 결혼이주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역학에서 지역사회통역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 범주는 동질적·균질적인 것이며 젠더나 혼인 여부에 따라 하위범주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주민이라고 모두 동등하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의 주체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주민의 통역 ‘수행’이 사회 진출, 성공과 동일시되면서, 이런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통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통역교육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언어·문화적 능력, 전환능력, 관련 분야 지식, 윤리적인 판단력 등을 갖춰야 한다. 외국어 구사력만으로 통역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통역사 인증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통역 전문성에 대한 인식도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의 주체로 부각되지만, 이들의 교육 문제, 통역 역량 향상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없다. 언론보도에서 통역 전문성의 부족이나 부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문제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또한 뉴스에서 ‘자원봉사로서의 통역’이 주목받는 것도 통역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 물론 통역자원봉사는 전문통역사가 부족한 한국사회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

11) 언론에서는 의료통역을 다문화의 관점보다는 의료관광과 수익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강지혜 2010).

서 그리고 이주민이 통역을 통해 사회 참여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통역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나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역자원봉사의 부각은 전문통역의 필요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통역이 이주민의 성공 내러티브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다문화의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도 문제다. ‘통역활동을 하는 이주민’을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사회진출로 사례화하는 것은 이주민의 삶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주민이 통역사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이주민의 사회진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역사로 활동하는 이주민은 주로 모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고,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 집단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점을 참작한다면 이들의 성공을 사례화하여 부각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동화한 사람들을 부각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의 공존보다는 ‘동화주의를 위한 다문화주의’의 추구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사회통역은 이주민에게 ‘목소리’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통역이 다문화주의의 여러 원칙, 즉 동화주의, 분리주의, 융합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중 그 어떤 원칙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이념적,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통역이 다문화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통역이 공존과 통합과 상호인정에 기여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Baker 2006, Delisle and Woodsworth 1995).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종과 민족이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결코 상호존중, 인정,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이다. 통역은 ‘동화를 위한 다문화주의’를 추구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다원주의를 위한 다문화주의’, ‘문화간 수용 능력을 위한 다문화주의’, ‘비판적 의식을 위한 다문화주의’, ‘사회적 행동 위한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사회가 문화간 공통성과 동질성을 중시하면서도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문화 집단이 서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통역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시점에 지역사회통역이 이주민의 사회 진출, 주체적 역량 발휘와 연관된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주민 통역사의 양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역의 주체로서 이주민의 활동이 의미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증제도와 통역사 관리체계도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적 신뢰나 인정 없이는 이주민의 통역활동이 지속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값싼 이주노동력’을 토대로 한다는 인식만 형성할 수 있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통역사로 활동하는 이주민’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봤듯이 언론보도와 통역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통역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통역사가 ‘통역사로서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확립하고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역학계를 비롯한 다문화 담론의 모든 주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통역사의 교육과 양성, 전문화와 관리체계 확립을 비롯한 많은 문제는 어느 한 주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공존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강지혜 (2009)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0(4): 9-40.
- 강지혜 (2010)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통역에 대한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1(3): 7-39.
- 고영민 (2004)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5(1): 5-24.
- 고영민 (2005) 「대화통역사의 중재자적 기능」,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7(1):

3-18.

- 김경희 (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한국방송학보』 23(3): 7-46.
-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361-387.
- 김나제스다 (2012) 「의료대화와 의료통역: 대화의 비대칭성에 따른 환자의 저항반응 관행 비교」, 『통번역학연구』 16(3): 43-68.
- 김영명 (2013) 「한국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141-174.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정혜연·이상빈 (2009) 「전문통역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대책」, 『통번역학연구』 12(2): 125-144.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희정 (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16-40.
- 류현주 (2006) 「커뮤니티통역의 전문성 제고 방안」, 『번역학연구』 7(1): 87-103.
- 박선희 (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인터넷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5(2): 81-119.
- 손영준 (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2): 240-266.
- 심승환 (2009) 「다문화교육의 의미에 대한 교육철학적 고찰」, 『교육철학』 45: 121-150.
- 양정혜 (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 47-164.
- 엄한진. (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한국사회학회)』 13-43.
- 엄한진 (2008)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132: 112-140.

- 오경석 (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마을 학술토론회 발표 논문집』 2-15.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경숙 (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 <러브인 아시아>의 텍스트분석」, 『한국방송학보』 20(3): 239-76.
- 이동후 (2006)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아시아」, 『방송문화연구』 18(1): 9-35.
- 이민경 (2013)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성 교육: 세계시민성과 현대의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6(2) 115-136.
- 이용승 (2010) 「특집: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주체와 제도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44: 126-145.
- 이용승 (2011)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패러다임 연구 및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5-80.
- 이지은 (2011)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2(3): 197-224.
-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2): 405-444.
- 정혜연 (2009) 「법정통역 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6.
- 조상식 (2009)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의 한계」, 『교육철학』 44: 139-155.
- 조현상 (2012) 「“다문화 담론”의 한계성과 유효성에 관한 고찰: 한국 다문화사회 수렴(收斂)과정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63: 219-246.
- 진시원 (2011) 「한국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코기토』 69: 425-450.
- 최철 (2009) 「법정통역의 법적 의의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 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52-270.
- 한경구·한건수 (2007)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적 ‘다문화주의’ 이론회(동북아시아대위원회 용역과제, 한국사회학회)」, 67-110.

- Angelelli, Claudia (2004)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London: Routledge.
- Barry, Brian (2002) *Culture and Eq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sky, Robert (1996) 'The Interpreter as Intercultural Agent in Convention Refugee Hearings', *The Translator* 2(1): 45-63.
- Bateson, Gregory (1972)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ollected Essays in Anthropology, Psychiatry, Evolution, and Epistem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ng, Janet and Lucien Lombardo (1997) 'Talking Past Each Other about Sexual Harrassment: An Exploration of Frames for Understanding', *Discourse and Society* 8(3): 293-311.
- Berk-Seligson, Susan (2002) *The Bilingual Courtro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 I)*,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Corsellis, Ann (2008) *Public Service Interpreting*, Basingstok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ronin, Michael (2002) 'The Empire Talks Back: Orality, Heteronomy and the Cultural Turn in Interpreting Studies',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386-397.
- Davidson, Brad (2000) 'The Interpreter as Institutional Gatekeeper',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3): 379-405.
- De Groot, Anette (1997) 'The Cognitive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Three Approaches', in Joseph Danks, Gregory Shreve, Stephen Fountain, and Michael McBeath (eds), *Cognitive Processe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housand Oaks: Sage, 25-56.
- Delisle, Jean, and Judith Woodsworth (Eds) (1995)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Diriker, Ebru (2004) *De-/Re-Contextualizing Conference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Entman, Robert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Fairclough, Norma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Gile, Daniel (2004) 'Translation Research versus Interpreting Research: Kinship, Differences and Prospects for Partnership', in Christina Schäffner (Ed), *Translation Research and Interpreting Research: Traditions, Gaps and Synergi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0-34.
- Gerver, David (1969/2002) 'The Effects of Source Language Presentation Rate on the Performance of Simultaneous Conference Interpreters', in Franz Pöchhacker and Miriam Shlesinger (Eds), *The Interpreting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3-66.
- Gerver, David (1974) 'Simultaneous Listening and Speaking and Retention of Prose',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6(3): 337-341.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 Hale, Sandra (2004) *The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le, Sandra (2007) *Community Interpreting*, Basingstok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le, Sandra (2011) 'Public Service Interpreting', in Kirsten Malmkjær and Kevin Wind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43-356.
- Hertog, Erik (2009) 'Legal Interpreting: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통번역학연구』 12(2): 271-297.
- Hertog, Erik and Bart van der Veer (Eds) (2006) *Linguistica Antverpiensia 5. Special Issue: Taking Stock: Research and Methodology in Community*

Interpreting.

- Inghilleri, Moira (Ed) (2005) *Bourdieu and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pecial Issue of The Translator* 11(2).
- Jacquemet, Marco (2005) 'The Registration Interview: Restricting Refugees' Narrative Performances', in Mike Baynham and Anna De Fina (Eds), *Dislocations/Relocations: Narratives of Displacement*,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7-220.
- Jones, Roderick (1998) *Conference Interpreting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Katan, David (2004) *Translating Cultures* (2nd ed.), Manchester: St. Jerome.
- Kaufert, Joseph and Robert Putsch (1996) 'Communication through Interpreters in Healthcare: Ethical Dilemma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Class, Culture, Language, and Power', *The Journal of Clinical Ethics* 8(1): 71-87.
- Kymlicka, Will (2001) *Politics in the Vernacular: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mbert, Sylvie (1988) 'Information Processing among Conference Interpreters', *Meta* 33(3): 377-387.
- Lambert, Sylvie, Valeria Daro, and Franco Fabbro (1995) 'Focalized Attention on Input vs. Output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ossibly a Waste of Effort!', *Meta* 40(1): 39-46.
- Mason, Ian (Ed) (1999) *Dialogue Interpreting, Special Issue of the Translator* 5(2).
- Mikkelson, Holly (2000) *Introduction to Court Interpreting*, Manchester: St. Jerome.
- Ozolins, Uldis (1998)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in Australia: Current Issue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Melbourne: Language Australia.
- Ozolins, Uldis (2010)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 Interpreting: Comparative Perspectives on Government Motivation and Language Service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4: 194-215.

- Portera, Agostino (2008) 'Intercultural Education in Europe: Epistemological and Semantic Aspects', *Intercultural Education* 19: 481-491.
- Parekh, Bhikhu (2002)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ym, Anthony, Miriam Shlesinger, Zuzana Jettmarová (Eds) (2006)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ym, Anthony,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2008)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eddy, Michael (1979/1993)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4-324.
- Robertson, Rolan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 Roy, Cynthia (2000) *Interpreting as a Discourse Process*,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Charles (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densjö, Cecilia (1992) *Interpreting as Interaction: On Dialogue Interpreting in Immigration Hearings and Medical Encounters*, Dissertation, Linköping Studies in Arts and Science 83. Linköpi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 Wadensjö, Cecilia (2008) 'Community Interpreting',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3-48.

[Abstract]

Community Interpreting in Discourses of Multiculturalism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in which community interpreting is constructed in news texts concerning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Drawing on the concept of “frames”, the present paper analyzes 75 news texts gathered from two major Korean news institutions, the Hankyoreh and the Chosun Ilbo,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2011 to December 31, 2012. The analysis suggests that news texts dealing with both interpreting and immigration in Korea construct community interpreting in terms of five frames: ‘interpreting as communication’, ‘interpreting as social activity’, ‘interpreting as institutional support for immigrants’, ‘interpreting as volunteer activity’, and ‘interpreting as professional competence’. The paper argues that interpreting is used in media discourse to reconstruct the identity of immigrant women in Korea as active agents.

▶ Key Words: community interpreting, multiculturalism, multi-ethnicity, migration, social agency

강지혜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번역, 미디어번역, 다문화와 통역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